

## 창녕 교동 63호분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

### □ 조사개요

- 조사명 : 창녕 교동 39호분 및 주변 고분 발굴조사(문화재청 허가번호 제2014-279호)
- 조사목적
  - 우리 연구소의 2020년 연구과제인 “가야 고분과 유물 연구”의 일환으로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내 미정비지역의 고분 조사를 통한 학술 및 복원·정비 기초자료 확보
- 조사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산5 일원(조사면적 : 약 6,000㎡)
- 조사단
  - 단 장 : 김지연(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양숙자(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 조사원 : 김보상(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김천수(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권주영(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문정희(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김민범(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 □ 진행경과

- 발굴조사 대상 고분 선정 및 계획수립('14.3.13)
- 사적 현상변경 허가(3.17) 및 발굴조사 허가('14.3.28, 허가번호 제2014-279호)
- 발굴조사 착수('14.4.22)
- 1차년도 조사('14.4.22~12.19) : II군 봉토분 9기 및 석곽묘 15기 등 총 24기 확인
- 2지구 1차 자문회의 개최('14.11.25)
- 2차년도 조사('15.1.12~10.19) : II군 봉토분 9기 및 주변 고분 조사
- 2지구 2차 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 개최('15.9.4)
- 2지구 조사완료 및 유적보호조치(10.20~25)
- 3차년도 조사('16.4.4~10.20) : II군 39·63호분 1차 봉토조사
- 4차년도 조사('17.8.28~12.22) : II군 38·62호분 봉토·매장주체부 조사
- 5차년도 조사('18.2.19~10.24) : II군 39·63호분 2차 봉토조사
- 6차년도 조사('19.2.20~12.24) : II군 39·63호분 3차 봉토조사, 39호분 1차 매장주체부 조사
- 7차년도 조사('20.4.6~진행 중) : II군 39·63호분 횡구부조사·동-서, 남-북 주축 토증조사, 39호분 내부 유물 수습, 38.62호분 추가 조사
- 1지구 기자간담회, 현장설명회, 자문회의 개최('19.11.28.)

## □ 조사내용

### ◎ 63호분

#### ○ 유구

- 봉토 지름 21m, 높이 7m의 대형 봉토분으로 남북이 약간 긴 타원형을 띠
- 호석은 경사가 높은 동쪽은 2단으로 조성하고 주구를 설치함, 남서쪽 호석은 급경사로 인해 3단의 석축열로 조성함
- 남쪽 호석에 접하여 대호가 놓여 있고, 북쪽 호석에 접하여 매장주체부와 일직선상에 대호 1점이 놓여 있음
- 개석은 길이 2m 가량의 대형 판석 7매를 놓고 비교적 틈이 넓은 장대석 사이를 할석으로 매운 뒤, 얇은 점토를 매장주체부 상부 및 양 단벽부를 덮어 밀봉함
- 매장주체부 장축은 남-북이며, 규모는 길이 6.4m, 너비 1.3m, 높이 1.95m로 장단비는 4.6:1인 세장방형의 석실임. 벽석은 25~50cm크기의 할석을 횡평적하여 12~14단으로 쌓았음. 석실의 4면에 초본류를 섞은 점토를 바르고 그 위에 주칠을 하였음
- 매장주체부의 내부는 주피장자 공간, 주피장자 두향의 부장품 공간, 주피장자 발치의 순장자공간으로 크게 3부분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피장자의 공간은 매장주체부 높이 40cm 가량의 관대를 설치하여 피장자를 안치하고, 안치된 피장자의 전신에 금동관, 금제태환이식, 경식, 은제대금구, 은제지환 등의 장신구 일체를 착장하였으며, 피장자 양측에는 철모, 도자 등의 무기류를 배치하고 발치에는 행엽 등의 마구류와 토기류를 배치함
- 주피장자의 머리 위쪽 부장품 공간에는 다수의 토기와 철제 농공구류를 부장함
- 주피장자 발치의 순장자 공간에는 토양화가 진행된 정강이뼈와 치아 일부를 통해 2인 이상의 순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두향은 주피장자와 같이 남쪽임. 순장공간내에서 다량의 껍쇠 확인(순장자도 목관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석실의 북쪽에 1.8~1.6m×0.3m 크기인 2매의 장대석을 '二'자 형태로 놓아 묘도와 유사한 형태로 조성함
- 63호 봉토 내 매장주체부의 남편에 1기의 옹관묘, 2기의 석곽묘가 있으며, 순장묘로 추정됨. 63-1석곽은 길이(남-북) 3m, 너비(동-서) 0.4m, 깊이 0.8m, 63-2옹관은 길이(동-서) 1.5m, 너비 1m, 63-3석곽은 길이(남-북) 2.6m, 너비(동-서) 0.4m, 깊이 0.5m임
- 2기의 석곽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장경호, 단경호, 고배류 등의 토기류와 소도 1점이, 옹관에서 출토된 유물은 금제세환이식, 경식, 은제지환, 방추차, 소형토기류가 있음

- 매장주체부 동장벽에서 약 80cm 이격된 동쪽 사면에 너비 약 1m의 배수시설이 확인됨. 배수시설은 맹암거 방식으로 암반을 굴착한 뒤 흑갈색점토를 한 벌 깔고 그 위에 직경 13cm 정도의 자갈을 전면 깐 뒤 상부를 흑갈색점질토로 덮어 조성하였음. 이 시설은 63호분 매장주체부를 감싸는 형태로 완만한 'C'자형을 이루면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음. 맹암거 배수시설은 매장주체부를 개석밀봉단계까지 만들고, 그 후 지형이 낮은 서편의 봉토를 일정 높이로 성토할 때까지 동쪽 사면에서 내려오는 물이 매장주체부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임시 배수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됨

## ○ 유물

- 63호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전체 길이 21cm, 대륜의 너비는 3cm, 입식은 3단인 수지형 대관임. 입식의 '出'자 모양이 직각에 가깝게 꺾여 있음. 장식으로 타출 반구문과 점열문대를 시문하였으며, 영락을 달았음
- 금동관의 내부에는 식물의 흔적이 확인되며 모(帽)로 추정됨. 국내에서 확인된 금동관 가운데 머리에 씌운 식물의 흔적을 확인한 경우는 첫 사례임. 경주에서 출토된 금동관으로 볼 때, 황남대총 북분~금관총 단계로 추정됨
- 피장자가 착용하고 있는 은제대금구는 방형판에 심엽형수식이 달려있는 형태로, 방형판에는 영남지방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되는 삼엽문이 투조되어 있음. 창녕 교동 3호분, 창녕 송현동 6호분, 창녕 계성 A지구에서 출토된 대금구와 유사함. 또한 대금구의 동편에서(피장자의 오른쪽) 주황색 구슬이 정연하게 확인되었는데, 새로운 스타일의 대금구 장식일 가능성이 있음
- 피장자의 발치에서는 금동제편원어미형행엽이 출토되었음. 이 행엽은 신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유물로 금동관과 더불어 창녕 교동 63호분 축조세력과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고고자료로 판단됨
- 63호 석실 내부에 부장된 유개고배류는 작은 방형 투창이 있는 굽형 꼭지를 가진 뚜껑과 배부의 형태가 비교적 직선적이며, 2단교호투창대각을 가진 고배가 세트로 다수 확인됨. 시문되어 있는 문양은 점열문과 삼각집선문 중심이며, 경부가 직선으로 올라가는 장경호류에는 원점문과 종집선문을 주로 시문하였음. 63-1석곽, 63-3석곽에서 출토된 유개고배도 63호 석실에 매납된 형태와 유사함. 단순히 고배류와 장경호 두 기종으로 판단하건데 창녕 교동 1·3호분과 시기가 유사하거나 늦을 것으로 보이며, 창녕 송현동 6·7호분 출토 고배류 보다는 선행하는 시기로 판단됨

## □ 조사성과

- 63호분 피장자 전신에 착장된 금동관, 금제태환이식, 은제대금구 등 온전한 장신구 일체의 출토는 창녕 지역에서 첫 사례이며 금동관 내부에서 확인되는 직물의 흔적은 관모(冠帽)일 가능성이 있음
- 63호분 주피장자에게 착장된 장신구 배치는 최근 발굴조사로 알려진 경주 황남동 120-2호 분 피장자 장신구 배치와 극히 유사하여 비화가야와 신라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로 판단됨
- 매장주체부 남쪽에서 확인된 석곽묘 2기와 옹관묘 1기는 순장묘로 추정되며 창녕 지역에서 봉토 내 확인된 첫 사례이며, 옹관묘에서는 1쌍의 금제이식이 출토되어 주피장자와 순장자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유물로 추정됨
- 봉토 내 매장주체부 동장벽에 인접하여 암반을 ‘凹’자로 굴착하여 만든 맹암거 배수시설은 창녕 지역 고분조사에서 최초로 확인된 사항임
- 매장주체부 북쪽에 1.8~1.6m×0.3m 크기인 2매의 장대석을 ‘二’자 형태를 확인함
- 63호분은 내부 출토 유물 등으로 보아 5세기 말~6세기 초로 편년될 것으로 보임
- 63호분은 수혈계 황구실석실로 추정되며 향후 조사 및 연구되어야 할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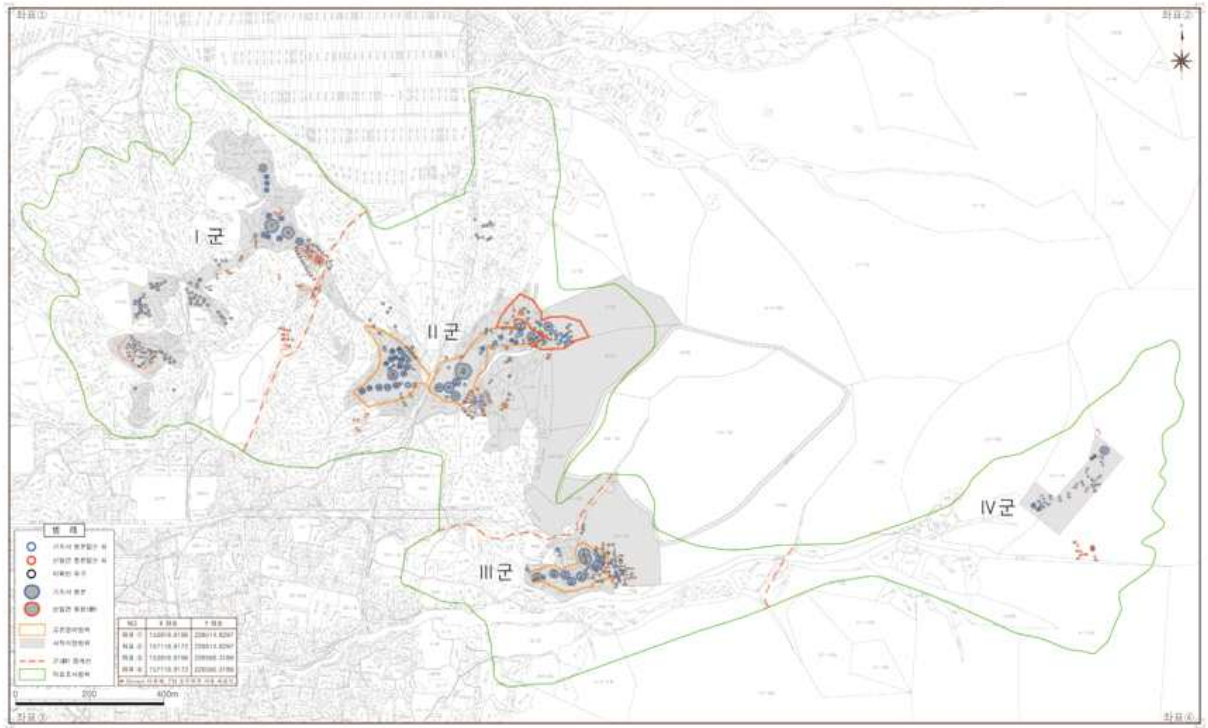
## □ 향후 조사계획

- 63호분 유물 수습, 봉토 기저부 조사(10~11월)
- 조사종료 및 유적 보호조치(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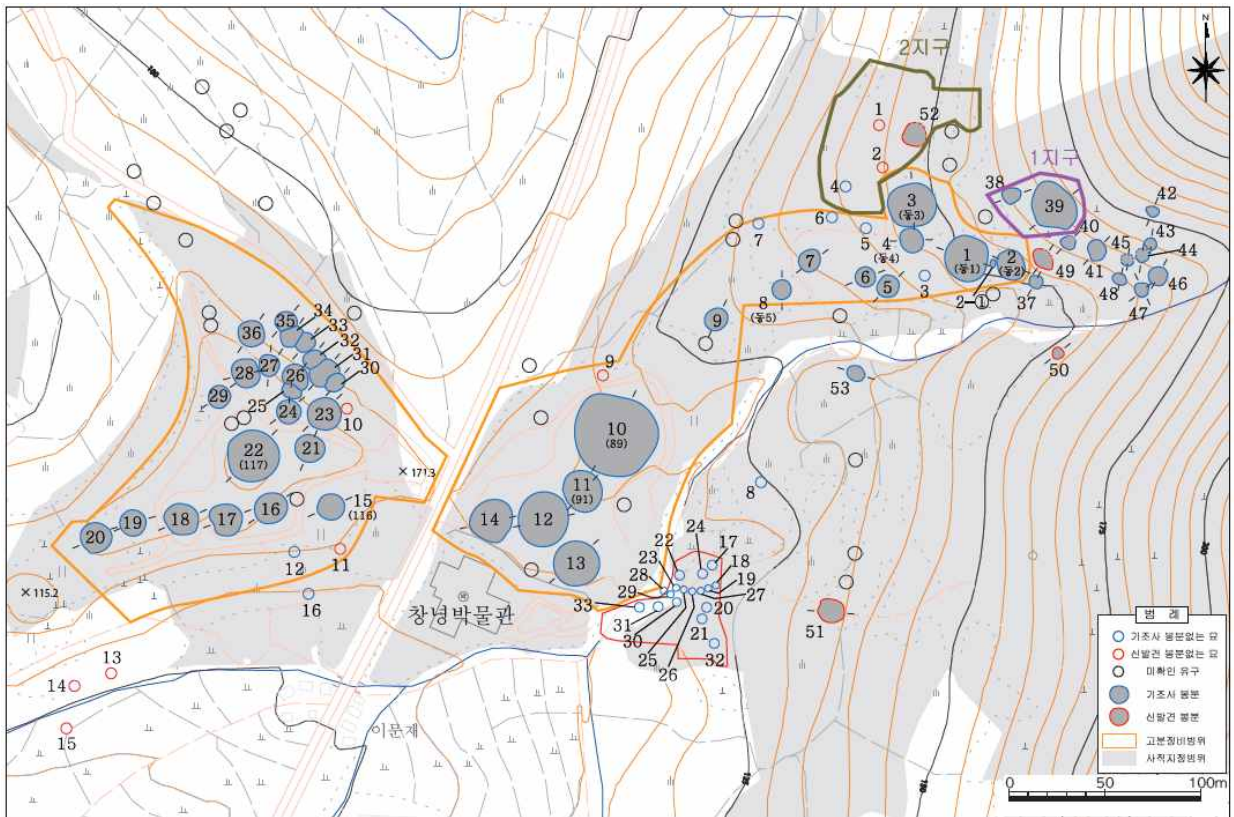
## □ 검토사항

- 63호분 하부봉토 등 조사 내용 및 향후 조사 사항 검토
- 63호분 매장주체부 북쪽에 놓여진 2매의 장대석 의미 검토
- 63호분 매장주체부 출토 유물 검토 등

# [도면 및 사진]



도면 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현황도(붉은색 표시 - 조사지역)



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II군)





사진 1. 63호분 및 주변 고분 전경(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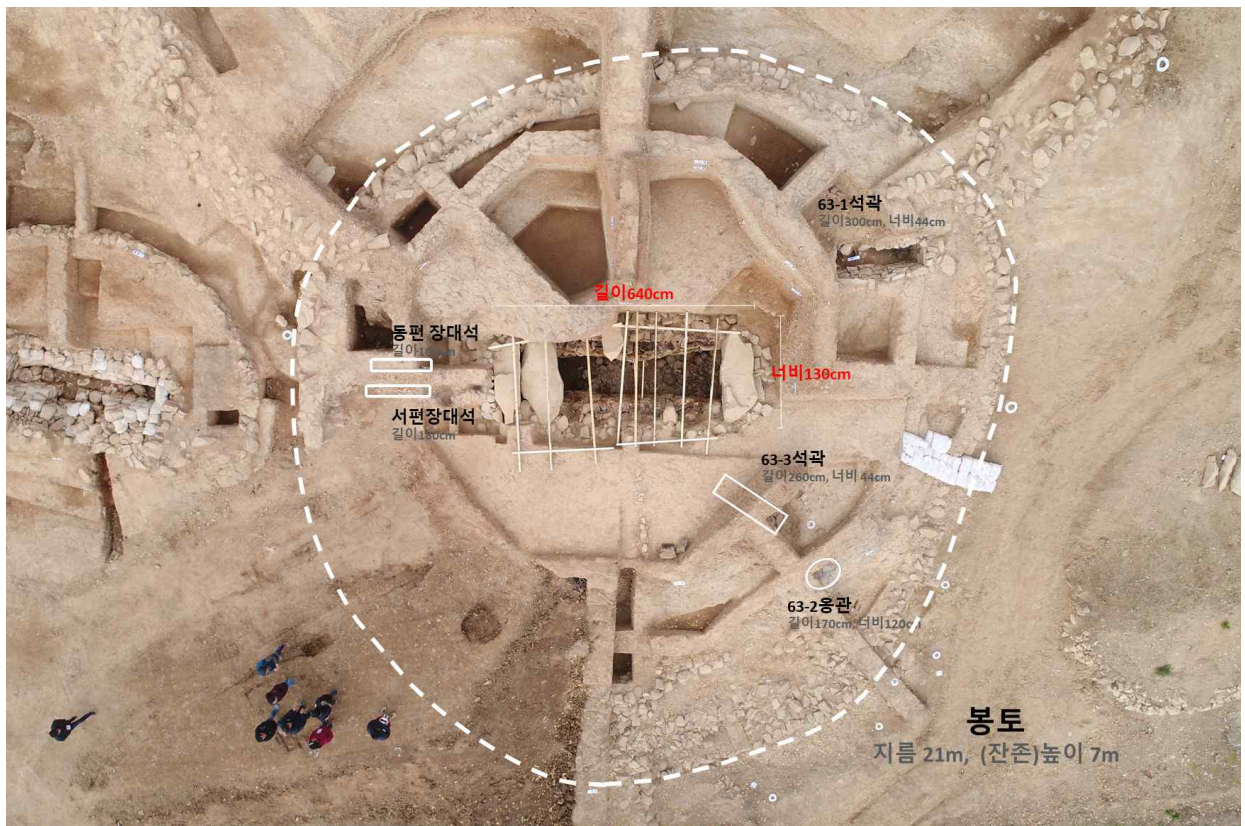


사진 2. 63호분 근경(서-동)





사진 3. 63호분 개석놀출 모습 전경(북-남)



사진 4. 63호분 개석 4매 제거 후 모습



사진 5. 63호분 매장주체부 유물 노출 모습





사진 7. 63호분 매장주체부와 멩암거 배수시설 모습(서-동)



사진 8. 63-1호분(북-남)



사진 9. 63-2호분(남-북)



사진 10. 63-3호분 전경(북-남)



사진 11. 장대석 2매 모습(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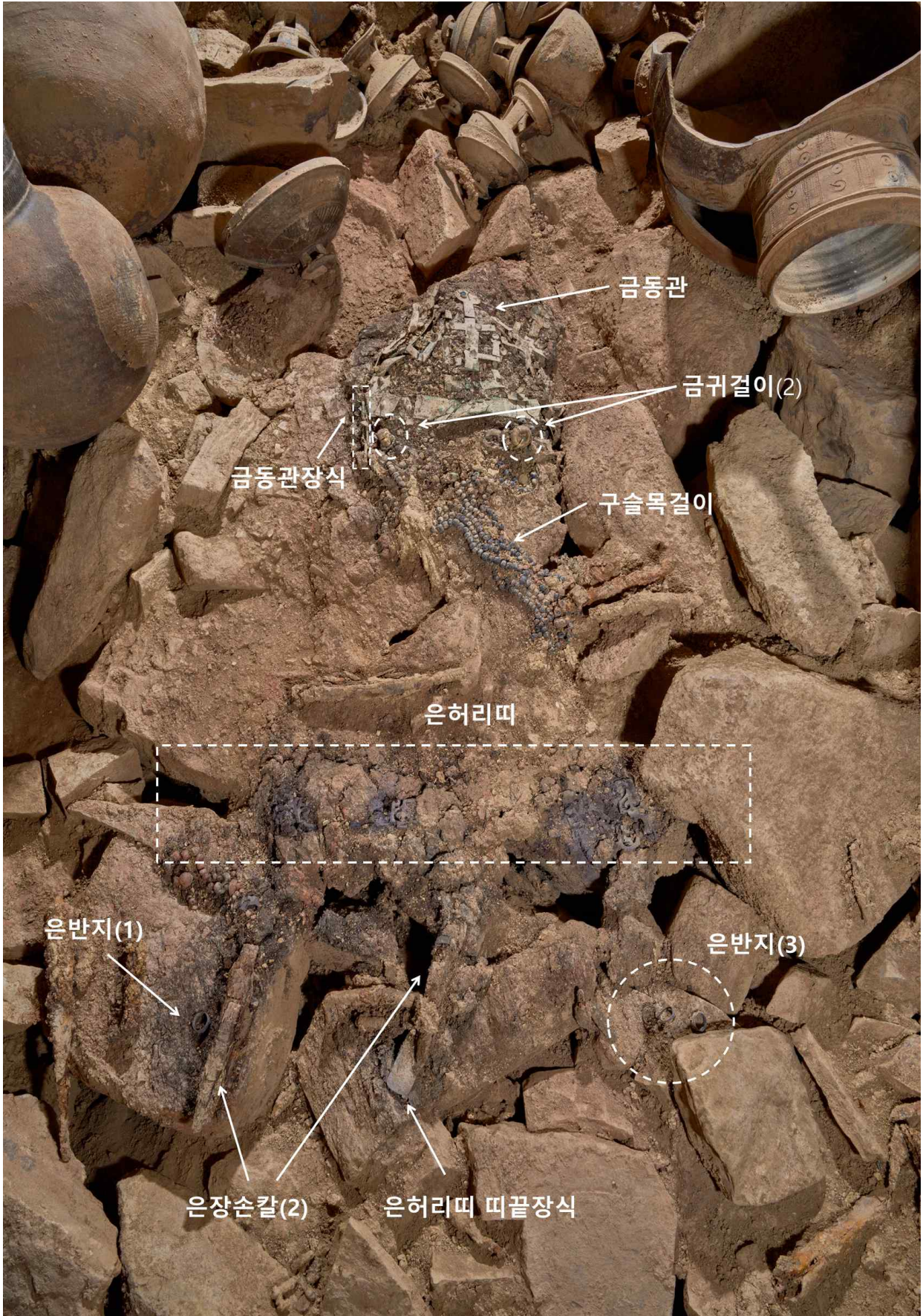


사진 12. 63호분 피장자 장신구 일체 노출 모습





사진 13. 금동관 내부 직물(관모) 모습



사진 14. 금동관 직물 세부 모습



사진 15. 금귀걸이 출토 모습



사진 16. 대금구 세부 모습



사진 17. 대금구 우측 장신구 모습



사진 18. 대금구  
장식도자 · 지환



사진 19. 대금구  
장식도자 · 띠끝장식





사진 20. 63-1호 출토 토기 모습



사진 21. 63-2호 내부유물 출토 모습



사진 22. 63-2호 출토 이식 모습



사진 15. 63-3호 출토 토기 모습